

◇ 업무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폰 서비스 개발

- 일본 최대 무선통신업체 NTT도코모는, 축산 농가를 위해 업무 효율화가 가능한 스마트폰을 사용한 소, 돼지의 원격감시 시스템 등을 JA전농과 제휴하여 공동 개발, 판매하기로 하였음.
- 축산업에서는 IT(정보기술)의 활용이 뒤쳐져 있어 향후 성장분야로 판단하여 수요를 개척기로 함.

◇ 소의 분만 감시 시스템

- 도코모와 JA전농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축산업 전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년간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함.
- 첫 번째 사업으로서 JA전농의 판매루트를 통해 소의 분만 감시시스템을 금년 6월중에 본격 판매에 들어감
- 분만을 앞둔 소에게 온도센서를 달아, 온도 변화로 분만 시기를 산출하여 농가의 핸드폰으로 통지하는 시스템이며 농가가 순찰 감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경감해주며, 출산 시 가축의 사망사고 또한 큰 폭으로 줄어 들 수 있음.
- 시스템 가격은 30만엔 이상으로 별도 통신료 등이 부가되며 향후 4년간 1만대의 농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

◇ 향후 전망

- 차후 송아지 혹은 새끼돼지의 체온 변화를 감시하고 가축들의 병해를 조기 감지하여 농가의 빠른 대책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등을 개발 예정
- 또한, JA전농이 제공하는 농가 경영관리시스템과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을 이용하여 컴퓨터 없이도 정보의 입출력이 가능케 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음.
- 도코모는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둔화에 따라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하는 기기간 통신 분야에 주력하고 있으며 JA전농과의 제휴도 그 일환임.
- 농업과 축산업의 IT화는 금후 성장분야로 주목받고 있으며 조사업체에 따르면 농업의 IT관련 비즈니스 시장규모는 2020년에는 2013년 대비 약 9배에 해당하는 6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◆ 시사점

- 농업경영의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과 IT의 접목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음. 우리 농식품 수출에 있어서도 안전성 확보,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및 물류효율화 등을 위해 IT 도입의 적극 추진이 필요

출처 : 일본경제신문(6.15)